

< 헛되지 않는 인생 >

시편 127:1,2 / 새찬송가 515(통일 256) 눈을 들어 하늘 보라

1. 세상 사람들은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산다고 다짐하면서 수고로이 일합니다

솔로몬은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것 자체는 헛된 일이며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고백했습니다(시127:2).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삶을 누리는 것이 복된 인생이며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인간 스스로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 헛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사람의 노력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목표를 정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에 더하여 하나님의 돌보심이 주어져야만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돌보심 없는 인간의 노력 그 자체는 결국 헛됩니다(시127:1).

사람이 모든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모든 계획을 실제로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잠16:9).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만이 평안한 ‘잠의 안식’을 누리면서 자신의 마음으로 계획한 모든 것이 넘치도록 이뤄지는 복을 받습니다.

2.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일을 행하는 자이지만 일을 행하실 뿐 아니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을 말하며 이는 곧 목적이 이끄는 삶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이는 곧 ‘성령의 이끄심’을 말합니다(시23:1-6).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 일을 많이 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수동적으로 이끌려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 일이 다 이뤄지고 그 결과 푸른 초장과 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 죄악으로 인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원수를 만나도 내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고난조차 주님께서 선을 이루시어 인생 전체를 수놓는 작품이 됩니다.

3.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란 ‘잠의 안식’을 말합니다. 이는 육신의 피로를 푸는 잠과 같이 최악의 과거에 대한 기억이 없어져 누리는 안식을 말합니다. 이런 안식을 누려야 인생이 헛되지 않습니다(고후5:17).

성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의 죽음 이후 슬픔에 잠겨 있다가 목욕 후 잠에서 깨어나며 교부 암브로시우스의 찬송시를 떠올렸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지여.

하늘을 다스리시며, 낮에는 아름다운 빛을 입히시고

밤에는 은혜로운 잠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이시여.

주님이 주신 이 안식이, 지쳐서 녹아져 버린 육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 일할 수 있게 하시고,

피로에 가득 찬 마음을 부드럽게 달래어 주시며,

마음을 짓누르는 불안한 슬픔이 모두 온전히 녹아지게 하소서.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받아서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복을 누리고, 또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잠의 안식’을 누림으로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 적용 & 실천 >

우리의 일을 이끄는 것은 나의 의지입니까 성령님이십니까? 주님께 나의 짐을 맡기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입니다.